

종교교육학연구 제50권. pp.91-109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6. 2. 28.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종교교육의 한 주제로서 종교와 미디어

성 기 현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요 약〉

종교와 미디어의 생태공간 속에는 현대사회 종교의 특징들이 잘 드러나 있다. 현대의 종교교육 내용에는 미디어와의 관계 속에 드러나는 현대 종교의 함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종교적 미디어메시지'의 '생산'과 관련된 내용, 종교미디어의 콘텐츠 - 혹은 세속 미디어에서 다루는 종교적 콘텐츠에 대한 내용, 종교미디어 메시지 수용자들에 대한 내용, 인터넷과 종교에 대한 내용, 그리고 문화연구의 관점에서 관찰한 종교현상에 대한 내용을 주요 주제로 삼고, 여기에 나타난 현대 종교의 특징들과 존재양식을 종교 교육의 내용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위의 주제에 대한 성찰을 통해 드러난 종교의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종교교육에서 다루어 져야 함을 말한다.

첫째는, 종교의 확장성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교육자와 피교육자는 종교가 현대 미디어 사회에서 외연을 넓히는 방법 - 그리고 이 과정에 개입되는 정치-경제-사회적인 요인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는 미디어 시대 종교 변동 시작점의 좌표와 영역의 문제이다. 이에 관해 본 논문은 미디어상의 종교적 콘텐츠가 종교 변동의 진원지가 될 수 있음을 밝혔고, 바로 이런 점을 종교교육 - 나아가 '종교와 미디어'교육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말하였다.

셋째는 종교 효과의 구체적인 메카니즘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곧 종교의 효과라는 것이 종교 자체의 힘에 기인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회적 장치나 제도의 힘과 결합될 때만 발휘되는 것인가, 더 나아가 후자의 효과에 종속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을 숙고하도록 한다.

넷째는 인터넷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인터넷 시대에 이르러, 인터넷이라는 거울을 통해 현대 종교의 다양한 스펙트럼과 구체적인 실상들이 오히려 분명히 드러나는 면이 있다. 바로 이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은 특히 인터넷과 종교의 부침에 관한 문제, 혼종성과 종교 정체성의 문제, 인터넷의 영성화에서 드러난 종교의 인식론적 영역에 대한 확장 동기 등을 종교교육에 포함

시킬 것을 제안한다.

끝으로, 문화연구의 관점에서 관찰한 종교현상에 대한 내용 역시 종교에 관한 교육의 주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논의한다. 종교는 현대 사회 곳곳에서 형태와 모드를 달리하여 존재하고 있고, 종교 교육은 바로 이 점을 포착하여 현대사회에 종교가 존재하는 그 특유의 양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핵심주제어: 종교, 종교교육, 미디어, 현대사회, 인터넷, 종교상황

I. 서론

2011년 6월 28일, 로마 가톨릭의 총 본산인 바티칸은 통합 멀티미디어 뉴스 포털 사이트를 개통한다. 이 뉴스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바티칸은 바티칸의 라디오, 신문 등으로 나뉘어 보도되던 가톨릭 소식을 한데 모아 보다 통일된 형태로 재보도 하도록 한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바티칸 미디어 관계자가 새로운 미디어 포털의 개통 소식을 미국 뉴스 기관인 AP통신(Associated Press)에 먼저 알렸다는 점이다. 바티칸 미디어 관계자는 이런 새로운 소식을 절대로 바티칸 광장에서 외치거나 거리에서 전단을 돌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알리지 않는다. 필자 역시 마침 지인이 보내준 이메일 속 신문 기사 링크를 통해 바티칸 미디어 포털의 개통소식을 알게 되었다. 바티칸은 미디어 포털을 열고, 이 사실을 지붕위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미디어 기관을 통해 알리며, 그 미디어 기관은 이 소식을 또 다른 미디어 기관들에 알리고, 필자는 컴퓨터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켜 후 이메일을 열어 - 마침내 거대 종교의 어떤 움직임에 대한 소식, 즉 새로 마련된 바티칸 뉴스 포털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위의 일화는 현대 사회 내에서 종교, 그것도 거대 세계종교가 존재하는 방식 및 미디어 기술과 밀접히 관련을 맺고 있는 현대 종교의 상황에 대해 몇몇 중요한 사실들을 말해준다.

종교기관은 미디어 기관 - 그것도 첨단 기술 활용하는 미디어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런 미디어 기관을 여러 개 설립하는 것 이상으로, 이것들을 적절히 통합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여긴다. 종교 기관은 주요 ‘동정’들을 끊임없이 알릴 필요가 있으며, 이 알림의 과정에서 역시 미디어 기관의 힘을 필요로 한다. 종교 기관은 교의적, 사회적, 전례적 활동 등의 ‘움직임’을 보이는데, 그 움직임을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조작들(컴퓨터 켜기, 인터넷 접속, 마우스 클릭, 혹은 티브이 시청), 기술적인 것들(인터넷 망, 전기, 컴퓨터, 방송망)의 힘을 통해서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현대사회의 종교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현대의 종교는 텍스트로 존재하기도 하며 전례를 통하여, 혹은 집단(교단)의 형

태로, 혹은 교의적 언어형태로 - 결정적으로 미디어 기술의 힘을 통해 존재한다. 관점을 달리하여, 다시 질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대의 종교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현대의 종교는 사람들의 말(담론)과 행동과 의식 속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디어 기술이 구축해 준 미디어 공간 속에 존재한다.

종교의 미디어화 (mediatization)¹⁹⁾라는 용어는, 종교가 미디어 기술이 구축해낸 생태계 속으로 진입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생태계의 차원과 분위기에 스스로를 맞추어 나가야 하는 상황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

종교의 현존은 미디어 공간 안의 현존을 통해 매개되며, 종교가 현실 사회에서 생명력 있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길은 미디어 공간 안에 종교의 표상을 적절히 마련하는 일이다. 종교의 교의 (교리), 활동, 제례에 관한 정보는 주로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고, 사람들의 종교경험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증폭시키는 일 역시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상의 내용들은 과거의 종교가 일찍이 겪지 않았던 새로운 현실이며, 바로 이러한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여 종교가 보이는 다양한 반응 속에 또한 현대 종교의 본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미디어 생태계와 관련된 종교의 현실을 조망하며, 과연 종교에 관한 교육의 주제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종교교육분야 내에서 미디어와 관련시켜 종교 교육을 할 때, 그 주요 주제는 미디어를 실제 종교교육에 도구로 활용하는 방안들과 그러한 활용이 교육학적 관점에서 어떠한 함의들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숙고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²⁰⁾ 이러한 숙고는 매우 실제적이고 유용하며, 종교교육학을 현실의 학문으로 위치시키는 긍정적인 사고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방향으로의 진행과 함께, 종교에 관한 교육은 앞서 기술한 종교와 미디어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 생태계에 대한 관찰과 그 종교-문화-시대적인 의미에 대한 성찰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 현대사회를 조율하는 거대한 소통망으로서 기능하는 미디어와 이러한 미디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손과 발, 그리고 ‘신경’을 확장하고 있는 현대 종교의 매체화된 (mediatized) 존재양식은 종교교육학의 학문적 조망범위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종교와 미디어의 연동성과 공생성의 함의들을 가르치기 위해, 구체적으로 종교와 미디어의 관계에 대해 어떤 주제를 설정하고 관찰해야 할까? 이하에서는 주로 미디어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종교와 미디어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양한 관점과 주제들을 1) 종교적 미디어메시지의 ‘생산’과 관련된 내용, 2) 종교미디어의 콘텐츠 - 혹은 세속 미디어에서 다루는 종교적 콘텐츠에 대한 내용, 3) 종교미디어 메시지 수용자들

19) S. Hjarvard, *The Mediatization of Culture and Society*, (New York: Routledge, 2013).

20) 김수환, 황영주, 「멀티미디어 창작을 활용한 기독교교육의 가능성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44 (한국 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15).

에 대한 내용, 4) 인터넷과 종교에 대한 내용, 5) 그리고 문화연구의 관점에서 관찰한 종교현상에 대한 내용으로 분류하고, 여기에 나타난 현대 종교의 특징들과 존재양식에 대해 기술해 보겠다.²¹⁾

II. 종교, 미디어, 종교교육

1. ‘종교적 미디어메시지’의 ‘생산’과 관련된 내용

서두에서 언급한 바티칸 포털사이트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종교적 미디어메시지’²²⁾의 ‘생산’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거대 종교기관의 본산인 바티칸은 어떤 논의를 거쳐 어떤 목적으로 미디어 기관을 설립했는가? 과연 어떤 사람들이 바티칸 포털을 운용하며,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종교적 미디어 메시지를 생산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종교적 미디어메시지’ ‘생산’의 관점에서 종교와 미디어의 관계를 묻는 몇몇 예들이며, 이러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함의들을 종교에 관한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다.

종교와 미디어의 관계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종교적 미디어메시지’의 ‘생산’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숄츠의 경우, 종교적 메시지를 생산하는 종교미디어 기관의 부침을 역사적 관점에서 연구해 왔는데 그에 따르면 국가의 정책, 미디어 기술을 대하는 종교 기관의 태도, 포교에 대한 종교기관의 적극성이 종교미디어 기관의 흥망을 결정한다.²³⁾ 비슷한 관점에서 강대인은 기독교 방송의 발자취를 추적한다. 강대인은 특히 개신교의 선교지향적인 교리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변화와 독재정권의 간섭이 기독교 방송의 규모 축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였다.²⁴⁾ 국가 정책의 변화는 종교방송의 성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에서도 ‘광고 정책’은 종교방송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²⁵⁾ 박진규의 논문은 특히 주목할 만 하다.²⁶⁾ 박진규는 한국 사회에서 근본

21) 본 논문은 시론(試論)적 성격을 지닌다. 시론적 한계와 지면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본 논문은 현대의 종교교육이 ‘종교와 미디어’의 공생관계와 관련하여 다루어야 할 몇몇 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제한되어 있다. 본 논문이 보다 심층적인 연구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이하에서 제시된 내용들의 상호 관계를 밝히고 각각의 내용을 다루는 구체적인 교육 과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대한 후속 논문에서 바로 이런 내용이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2) 본 논문에서 ‘종교적 미디어메시지’란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미디어 기관이 만들어낸 미디어 콘텐츠를 말하거나, 세속 미디어 기관에서 생산한 종교와 관련된 미디어 콘텐츠를 말한다. 예를 들자면 외국인들의 ‘템플스테이’에 대한 티브이, 신문, 인터넷매체 등의 기사.

23) Q. J. Schultze, "The Mythos of the Electronic Church",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4/3), 1987.

24) 강대인, 「종교방송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논총』 4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6).

25) 윤석년, 「방송광고 규제정책의 변화와 영향에 관한 연구: 민영 미디어렐 도입과 중간광고 허용을 중

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일부 종교기관의 작동방식과 이에 비판적인 논평을 생산하는 상업미디어의 반응에 주목하며, 다원화된 가치를 저널리스트의 근본 정체성과 결합시키는 현대 미디어 메시지의 생산자들 (문화 엘리트)이 ‘일원화된’ 근본주의적 종교와 본질적으로 상충되는 관점을 지닐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충의 결과, 종교 - 특히 일원화된 근본주의적 교의와 무관하지 않은 한국 개신교에 관해 세속미디어가 생산하는 메시지는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

전술한 내용은 종교현상, 구체적으로 종교와 미디어의 상호 반응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포함하고 있다. 종교적 미디어 메시지의 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에 주목함으로써, 우리는 현대 사회의 맥락에서 ‘종교의 확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종교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 외연을 넓히고 종교적 이념을 한 사회에 두루 미치게 하며, 이 과정에서 근본 동력과 ‘방법’을 어디에서 찾는가? 그리고 이런 과정은 정치-경제-사회적인 간섭요인들에 의해 어떻게 제한되거나 반대로 추진력을 얻는가? ‘종교적 미디어 메시지의 생산’이라는 주제는 매우 국지적이고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함의에 대한 해석은 종교교육의 오래된 주제, 즉 종교의 확장성에 대한 질문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2. 종교미디어 콘텐츠, 세속 미디어에서 다루는 종교적 콘텐츠에 대한 내용

전술한 내용이 종교 메시지의 ‘생산’을 관찰하고 이를 종교교육에 적용하는 관점이라면, 이하의 내용은 생산된 종교 메시지, 즉 콘텐츠에 얹힌 함의를 관찰하고 이를 종교에 관한 교육에 활용하려는 시도이다.

종교미디어의 콘텐츠, 혹은 세속 미디어에서 다루는 종교적 콘텐츠에 관심을 기울인 많은 학자들은 종교에 관한 방송 보도나 신문 기사들을 분석해 왔고, 이런 분석을 통해 영적인 내용을 다루는 (그러나 제도종교적인 것은 아닌) 종교 콘텐츠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²⁷⁾ 다른 학자들은 종교방송의 콘텐츠가 어떤 패턴을 지니고 있으며, 종교방송 편성의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다.²⁸⁾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미디어의 콘텐츠를 분석하는 것과는 달리, 종교미디어 이외의 미디어 (세속미디어)에 나타난 종교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하려는 시도역시 있었다.²⁹⁾

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9(2) (문화방송, 2008).

26) 박진규, 「미디어의 종교담론 생산과 그 정당화 - TV 다큐멘터리 ‘신의 길 인간의 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22(6) (한국방송학회, 2008).

27) A. C. Shepard. “The media get religion”, *American Journalism Review*, (17/10), 1995.

28) J. H. Ellens, *Models of Religious Broadcasting* (Michigan: Grand Rapids, 1974).

29) 김기태, 「미디어가 그리는 종교 이미지 비교 분석」,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10 (한국언론학회, 2010).

이러한 분석들은 1) 현대사회의 맥락에서 사람들이 종교의 다양한 요소 가운데 어떤 요소들에 주목하고 있으며, 2) ‘제도종교성’에서 ‘제도’가 점차 사라져가고 ‘종교성’만이 주로 부각되는 현상이 21세기 종교지형 변화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생각 하도록 한다. 전술한 내용을 통해 유추한다면, 이제 종교가 스스로 자신의 이미지를 그려 내고 자신이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 스스로 만들어낸 바로 그 이미지를 유통시키는 일은 그다지 효과적인 일이 아닐 수도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종교기관과는 무관한 세속 언론기관에 의해 종교에 대한 이미지가 생산되고, 일반 대중은 바로 그렇게 생산된 이미지에 의해 한 종교가 지닌 색채와 성질을 이해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종교가 사회 전체를 조율하려는 원대한 이상을 품기 이전에 이미 종교 스스로를 조절하는 일마저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종교는 자신과 어떤 본질적인 연관관계를 찾을 수 없는 이미지들, 즉 누군가에 의해 생산된 이미지들에 기인한 거대한 판단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종교의 위상 변화와 관련된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흔히 주장하듯, 과거 세속화 이전의 종교는 모든 사회현상의 이해와 판단의 주체로 여겨질 만큼 상당한 현실-상징권력을 향유하고 있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종교가 ‘절대실체’가 아닌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여겨지게 되었으며, 이는 다른 사회 주체에 의해 이해와 판단의 ‘대상’이 된 세속화된 사회 속 종교의 위상을 반영한다. 이미 언급한대로 세속 미디어가 종교를 특정의 이미지로 ‘제시’하는 것은 일종의 물결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제시된 이미지에 의해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도 하며, 나아가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는 종교로 하여금 적응적 변화를 취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결국, 미디어상의 종교적 콘텐츠가 종교 변동의 진원지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미디어 시대에 이르러 종교 변동 시작점의 좌표와 영역이 매우 달라졌음을 시사한다.

한편,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에 대한 언론의 반응을 분석한 박진규의 논문은 종교적 콘텐츠를 공론의 장으로 실어 나르는 세속 미디어의 기저 의도를 잘 밝혀주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세속 미디어의 비교적 일치된 이미지 전달은 “종교가 담론적 차원에서 대안적 가치의 원천 및 제공자로서 기능하기를 바라는 세속 사회의 기대”를 반영한다.³⁰⁾ 이러한 통찰로부터, 종교가 ‘대안적 가치’의 제공자이길 바라는 ‘오래된 기대’는, 현대사회 종교의 위상 변화와 관계없이 여전히 유효하다 말 할 수 있다. 이처럼 종교 미디어의 콘텐츠, 혹은 세속 미디어에서 전하는 종교적 콘텐츠와 관련된 함의를 생각해 보는 것은, 21세기를 넘어선 현대 사회 종교상황과 특징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이해를 종교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 활용함으로써, 종교교육의 지형이 더욱 정밀해지며 또한 그 영역이 확장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30) 박진규, 「매개된 종교와 사회 변화 -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언론의 반응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4 (한국언론정보학회, 2015), p.239.

3. 종교미디어 메시지 수용자들에 대한 내용

종교 미디어 메시지의 ‘생산’에 얽힌 함의들, 생산된 ‘컨텐츠’와 관계된 여러 의미들을 생각해 보는 것과 함께 이러한 컨텐츠의 한 목적이 되는 ‘수용자’에 대한 관찰 역시 종교교육의 유용한 주제가 될 수 있다.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교의(교리)를 지니고 있다. 종교는 이 교리를 근간으로 하여 종파 내부적, 사회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를 생산한다. 이렇게 생산되어 축적된 메시지들은 종교 내외의 현실적-영적 양상을 판단하는 준거가 된다. 이처럼 종교조직의 중심부에서 생산된 메시지는 허공에 날리는 문자, 전파, 혹은 바이트의 조합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종교 조직이 어떤 메시지를 생산할 경우에는 신자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마음과 뜻을 다해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 그 메시지를 통해 신자인 수용자들의 신심 유지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한다.³¹⁾ 메시지의 생산자는 인지적 정보의 전달과 함께 수용자로부터 어떤 태도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수용자들은 종교 조직의 중심부에서 생산된 메시지를 생산자가 의도한 방식대로 수용하는가? 다시말해서, 그들은 중심부의 의도대로 신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산된 메시지들을 충실하게 수용하는가? 이 문제는, 1) 전통적으로 존재해오던 종교 교의와, 이 교의와 특징의 상황이 반응하여 탄생한 메시지들이 신자들에게 과연 얼마나 수용 가능한 형태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2) 종교조직의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효율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3) 궁극적으로는 종교적 의미를 생산하고 가르치는 종교 조직 핵심 그룹과 세상 속 신자들이 얼마나 상이한 세계관으로 상이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연결된다.

종교적 미디어 메시지의 수용자를 연구하는 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종교적 메시지의 수용 동기, 구체적으로는 종교신문이나 종교방송을 읽고 청취하는 수용자들의 동기에 대한 조사이다. 이러한 주제와 관련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수용자들은 정서적 안정 및 기분전환을 위해 종교방송을 청취한다.³²⁾

종교와 연관된 컨텐츠가 수용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는 작업은 종교 미디어 메시지의 수용자에 대한 연구 가운데 핵심을 이룬다. 이러한 조사는 컨텐츠의 효과에 대한 측정을 주 목적으로 한다. 사실, 종교 컨텐츠의 효과가 꼭 종교적인 영역으로만 한정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1950년대 미국의 폴톤 신 가톨릭 대주교의 티브이 설교 프로

31) 물론 해당 종교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종교조직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의도 역시 포함되어 있다.

32) 정미영, 한균태, 「종교방송에 대한 수용자 기대연구: 창원극동방송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9(3) (한국지역언론학회, 2009).

그럼은 미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었는데, 조사 결과 이 프로그램은 특히 가톨릭 시청자들에게 ‘사회적 소속감’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³³⁾

종교적 콘텐츠의 효과가 사회적 소속감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사회 통합과 연대’라는 종교 고유의 결속 효과가 미디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결속 효과가 종교 고유의 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매스미디어의 힘에 기인한 것인지 그 정확한 근원을 밝히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이다. 바로 이 점 역시 종교 방송의 수용자들을 관찰하는 것이 종교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숙고를 통하여, 종교의 효과가 종교 자체의 힘에 기인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회적 장치나 제도의 힘과 결합될 때만 발휘되는가, 더 나아가 후자의 효과에 종속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찰은 종교가 지닌 사회적 힘의 발원지를 찾는 것으로서 종교의 본질에 대한 질문에 맞닿아 있다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종교교육의 중요한 주제로 삼을 만 하다.

4. 인터넷과 종교에 대한 내용

인터넷 시대를 거치며 오히려 종교의 다양한 단면들이 선명히 드러나는 경향이 있으며, 바로 이 점이 종교와 인터넷의 관계를 주제화함으로써 종교교육이 취할 수 있는 이점을 말해준다.

종교와 인터넷의 관계에 대한 고찰은 우선 종교기관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적을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전명수는 개신교 교회들의 인터넷 사용을 분석하여, 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주로 선교의 도구, 집회와 예배의 대안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³⁴⁾ 헉켓은 선명한 관점에서, 종교 기관과 개인을 포괄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 할 때 그 ‘종교적인 목적’의 구체적 양상을 열 가지로, 즉 소통하기, 개종시키기, 정보 전달하기, 배우기, 경험하기, 실행하기, 구하기, 상품화하기, 옹호하기, 치유하기, 문제해결하기로 분류한다.³⁵⁾ 이런 광범위한 양상들은 곧 종교 현상의 거의 모든 단면을 포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은 곧 인터넷이라는 거울에 현대종교가 존재하는 거의 모든 방식이 투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매우 유동적이면서 동시에 뚜렷하고도 광범위한 표현-상호작용-소비-체험 도구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술이 그 사용자들에게 최상의 상황적응력을 제공하고, 이러한 인터넷의 속성이 역시 인터넷을 사용하는 종교의 본질과 존재양식을 일시에 발현하도록

33) E. C. Parker & D. Barry, *The Television-radio Audience and Religion*, (New York: Harper, 1955).

34) 전명수, 「정보화사회와 종교문화의 변용 - 교회의 인터넷 활용과 그 의의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33 (한국종교학회, 2003).

35) R. I. J. Hackett, "Religion and the Internet", *Diogenes*, (53/3), 2006.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혹자는 인터넷이 지닌 바로 이러한 최상의 유용성으로 인해 가시적인 틀과 운용방식을 지닌 제도종교의 형태와 윤곽이 흐려질 것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광범위한 조사 결과 인터넷은 제도종교를 교체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³⁶⁾

1) 혼종성과 종교 정체성의 문제

가상의 사이버공간상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는 오프라인상의 상호작용에 항상 수반되는 구조화 조건이 결여되어 있다.³⁷⁾ 한편 온라인 공간은 정통에 가까운 종교 정보로부터 신생 종교의 극단적인 종교관 및 세계관을 담고 있는 정보, 나아가 사실에 근거한 종교정보와 출처와 진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종교 정보 등등 그 상태와 질이 극단적으로 다른 상이한 종교정보들이 매우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공간이다. 관계의 면에서 볼 때, 온라인 공간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동적 상호작용과 느슨한 결속관계가 넘쳐난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적 인터넷 사용자는 종교적 ‘지뢰’와 ‘보물’이 혼재해 있는 사이버 공간을 이동하며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에 끊임없는 위협을 받으며 동시에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³⁸⁾ 그러나 이러한 혼종성(hybridity)을 ‘특유성’ 혹은 고유성 (vernacularity)의 조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다시 말해서, 극단적으로 상이한 담론들과 안정적이지 않은 관계들이 뒤엉켜 있는 온라인의 독특한 ‘사회상’은 개인의 종교적 정체성에 위협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혼종화’ 특유의 다이내믹과 결합하여 새로운 방식의 종교성을 낳게 하는 촉진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상에는 종교와 관련된 권위적인 언어, 협상적인 언어, 개인의 주장을 담은 언어와 다원주의적 언어 등등 - 종교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수사형태가 존재한다. 이러한 수사적 기법들은 결과적으로 빈번한 만남과 조우,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인터넷의 기술적인 특징으로 인해 독특한 혼종적 수사로 변모되는 경향이 있다. 수사학적 혼종성뿐 아니라 블로그와 같이 개인화된 공간은 필연적으로 제도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의 혼종을 탄생시킨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매우 공식적이며 제도적인 로마 가톨릭의 한 교회문헌을 그대로 복사해놓았다고 하자. 이때 그렇게 옮겨진 교회의 문헌은 ‘제도적, 공적’이기도 하며 동시에 비-제도적, 사적이기도 하다. 이처럼 개인적인 것과 개인적이지 않은 것의 독특한 혼합을 특유성 (vernacularity)이라 부르고, 이러한 혼종의 가능성은 인터넷 공간의 특성과 기술자체에 이

36) S. M. Hoover, L. S. Clark & L. Rainie. "Faith Online: 64% of wired Americans have used the Internet for spiritual or religious purposes",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http://www.pewinternet.org/pdfs/PIP_Faith_Online_2004.pdf>, 2004

37) 예를 들자면 서로간의 인사로 대화를 시작한다든지, 갑자기 상대의 면전에서 무례한 언사를 행하지 않도록 하는 규범이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다든지 하는, 관계의 물을 체계적으로 잡아주는 조건들.

38) M. Lövhelm, "Young people, religious identity, and the Internet", In *Religion Online: Finding Faith on the Internet*, L. L. Dawson & D. E. Cowan, (Eds), (New York: Routledge, 2004).

미 각인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터넷상의 혼종성은 “각인된 혼종성”이라 부를 수 있다.³⁹⁾ 전명수 역시 이러한 혼종성에 주목하는데 그에 따르면 종교적 인터넷 공간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통합 가능성”과 “교회의 공적 영역과 구성원의 사적 영역간의 구분이 점차 통합되며 모호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⁴⁰⁾

전통적인 종교관에 따르면, 개인의 종교 정체성은 무엇보다도 제도 종교의 권위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었다.⁴¹⁾ 그러나 인터넷 시대에 이르러 개인은 의도하지 않아도 자신의 종교 정체성을 구성하는 교의와 신념체계와 극단적으로 다른 다양한 종교담론에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경우를 자주 겪게 된다. 이제 종교 정체성의 영역에서 더욱 현실적인 문제는 ‘종교적 권위에 의한 정체성의 부여’와 함께, 상이한 종교정체성에서 파생된 담론과 정보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종교 정체성을 조정하고 재정립하는 일인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디어 환경의 놀라운 변화에 의해 종교 정체성의 문제는 이제 과거와는 다른 맥락에 놓이게 되었다. 종교 정체성과 관련된 새로운 현실, 이에 대한 종교계의 대처와 변화 양상 등은 종교학 - 나아가 종교교육의 긴박한 주제가 될 수 있다.

2) 인터넷의 영성화

일군의 학자들은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그 자체로 매우 영감적이고 영적이며, 따라서 종교적이라 주장한다. 워드하임에 따르면 사람은 항상 두 유형의 공간, 즉 물리적인 공간과 영적인 공간에 살아왔다. 물리적인 공간은 사람이 실제 활동을 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생활세계의 공간을 말하며 영적인 공간은 인간의 영혼과 정신이 활동하며 서로 상호작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단테와 같은 중세의 시인들은 중세의 사람들이 영적 공간에 대해 매우 세련되고 정교한 감성을 지녔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워드하임의 주장에 따르면) 근대 과학시대가 도래하며 수와 양으로 측정 가능한 물리적 공간만이 현실적이고 절대적인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상대적으로 영적인 공간은 딱히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개념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인터넷 시대에 진입하며 물리적인 요소들 (예컨대 몸의 움직임)이 아닌 정신적 요소만으로도 사람이 사이버 공간상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며 현존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것은 곧 잊혀진 ‘영적 공간’의 귀환을 의미한다.⁴²⁾ 인터넷에 대한 이러한 신학적 해석을 극단으로 몰고 간 사색가들은 인터넷 공간을 신적 현현이 마침내 완성되는 공간으로 해석하기도 한다.⁴³⁾ 종교 공동체들 역시 인터넷 기술 자체

39) R. G. Howard. “The vernacular web of participatory media”, *Critical Studies in Media Communication*, (25/5), 2008, p.507.

40) 전명수, 앞의글, 101-102쪽.

41) 예컨대 기독교의 세례.

42) M. Wertheim. *The Pearly Gates of Cyberspace: A History of Space from Dante to the Internet*,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0).

43) J. J. Cobb. *Cybergrace: The Search for God in the Digital World*, (New York: Random House,

에 내포되어 있는 종교적 영감을 강조하며 이를 구체적인 수사(rhetoric)로 표현한다. 이것은 곧 종교 공동체가 한편으로는 신성하지 않은 콘텐츠로 가득찬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정당성 부여의 과정을 ‘인터넷의 영성화’라 할 수 있다.⁴⁴⁾ 사실, 세상 모든 존재의 근원을 설명하려는 계획을 늘 그 중심에 품고 있는 종교가 과학기술의 존재를 종교적·영적 언어를 통해 설명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을 종교의 교의적 언어로 감싸려는 종교 특유의 속성으로 인해 종교인들은 증기기관과 전파를 영적 에너지의 관점에서 설명했으며,⁴⁵⁾ 이런 속성의 연장선이 바로 ‘인터넷의 영성화’라 볼 수 있다.⁴⁶⁾ 결국, 종교의 확장은 교세의 확장과 함께 그 교의적 언어의 인식론적 영역 확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바로 이 점이 또한 종교의 본질을 이룬다. 앞서 언급한대로, 인터넷 시대의 도래와 함께 오히려 종교 특유의 내재된 본질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 경향이 있으며 인터넷과 같은 기술 현상을 종교현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종교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 포함시킬 만 한 주요 주제가 될 수 있다.

5. 문화연구의 관점에서 관찰한 종교현상에 대한 내용

북미의 저명한 문화연구가 제임스 캐리에 따르면, 문화란 “일련의 관행들이며, 인간 행동의 모드이자 현실이 창조·유지·변화하는 과정” 전체를 말한다.⁴⁷⁾ 이러한 문화의 형성과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인데 이런 의미에서 캐리는 미디어의 사용과 소통체계를 문화연구의 중심으로 삼은 학자라 볼 수 있다.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이란 상징, 의미들의 창조와 교환을 말한다. 다양한 상징으로 무장한 대중문화는 문화연구가들의 주요 연구 주제이며, 본 논문은 문화연구의 관점에서 종교적인 요소들이 대중문화 속으로 녹아들어가는 과정을 관찰하려는 시도들에 주목한다.

문화연구가들은 대중문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며,⁴⁸⁾ 그 다양한 관점 가운데 하나

1998).

44) H. Campbell, "Spiritualising the Internet: Uncovering discourses and narratives of religious Internet usage", *Heidelberg Journal of Religion on the Internet*, (1.1), 2005.

45) J. W. Carey, *Communication as Culture: Essays on Media and Society*, (London: Taylor & Francis, 1989), p.120.

46) 이 부분의 핵심은, 과연 인터넷 공간과 증기기관 - 전파가 영적공간, 혹은 영적인 현상인가 하는 점을 밝히는 것에 있지 않다. 인터넷은 영적인 공간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때문에 인터넷 시대의 도래는 잊혀진 영적 공간의 도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바는 어떤 종교인들은 인터넷을 ‘영적인 언어’로 설명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경향’이 매우 특이하고 주목할만한 ‘사실’이라는 점이다. ‘인터넷의 영성화’로 정의한 이러한 경향은 사실 매우 뿌리 깊은 것으로서, 과학적 발견과 새로운 발명품의 출현을 종교적인 언어로 설명하려는 시도와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경향 속에 종교의 어떤 속성이 드러나며, 그 속성이 바로 종교의 인식론적 영역확장 시도라 말 할 수 있다.

47) 위의책, p.65.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클리포드 기어츠의 영향을 받은 제임스 캐리는 존 피스케와 함께 유럽의 문화연구를 미국의 토양으로 이식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는 가장 세속적인 대중문화 안에 ‘종교적 요소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관점이다. 예를 들어 도스는 미국의 전설적인 팝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의 팬문화가 그를 어떻게 ‘우상화’했고, 이 우상화된 엘비스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엘비스의 팬들은 어떤 식으로 종교적 기억의 방식을 팬문화와 결합시켰는가를 분석한다.⁴⁹⁾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종교적 제례의 요소들이 현대사회의 다양한 공적 문화 (공적 행사)에 녹아들어가 있는 방식 또한 주목할 만 하다. 사실 제례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종교학의 주된 주제였고, 종교학자인 에밀 뒤르크하임부터 멀치아 엘리아데, 피터 버거에 이르기 까지 제례의 ‘기억’과 현재화 역할에 주목하였다. 뒤르크하임에 따르면, 종교 예식은 “집단의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되살리고”⁵⁰⁾ 현재를 과거와, 개인을 집단성 (collectivity)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종교의 이러한 다차원적인 ‘연결기능’은 또한 한 사회를 조율하고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도 큰 힘을 발휘한다. 종교예식이 지닌 이러한 역할을 현대의 미디어 문명 안에서 이어받은 것이 다름 아닌 방송 이벤트이다. 공공 예식 (예를 들어 대통령 취임식)은 사회의 가치와 역사, 그리고 집단의 중요한 의식을 상기시킨다는 의미에서 이미 유사 제의적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서, 이러한 예식이 방송기술을 만나며 - 전파가 도달하는 거리만큼 ‘의식장소’의 범위를 극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현장에 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까지 간접적으로 그 예식에 참여시킴으로써 공공예식이 지닌 제의적인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중요한 공공 행사를 방송하는 기술적 방식 속에는, 그 행사 자체가 지니고 있는 유사 종교적 성격에 부합되는 기법들이 포함되는데, 과도한 소리의 증폭을 억제하고 최대한 ‘침묵의 모드’를 강조하는 것들이 그 예라 할 수 있다.⁵¹⁾ 세속화된 과학 사회에서 일견 종교는 점차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제도종교의 힘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하지만, 여전히 종교적인 것들 - 종교적 요소들은 현대 사회 곳곳에서 형태와 모드(양상)을 달리하여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종교가 강력한 무색무취의 형태로 존재하는 방식이며

48) S. Hall, “Encoding/decoding”, In *Keywords*. M. Durham & D. Kellner, (Eds), (Malden: Blackwell, 2001), p.128. 예를 들어 권력관계,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대중문화를 통해 어떻게 해서 확대, 유지, 재생산 되는가 하는 문제들.

49) E. Doss, "Believing in Elvis: Popular piety in material culture", In *Practicing Religion in the Age of the Media: Explorations in Media, Religion, and Culture*, S. M. Hoover & L. S. Clark, (Ed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50) E. Durkheim.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 C. Cosman. (Tran.),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 279.

51) 이러한 공공 행사를 로버트 벨라는 ‘공공영역의 종교’ (civil religion)라 정의하였고, 이러한 공공영역의 유사종교적 행사는 미디어의 힘을 빌어 그 힘을 증폭시킨다. R. N. Bellah & P. E. Hammond, *Varieties of Civil Religion*,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80). 미국의 국회를 방송하는 CSPAN-TV는 종교적인 모드를 방송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차용한다. CSPAN-TV는 음악의 사용을 극도로 자제하여 침묵의 상태와 ‘고요한’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유지하는데 이는 티브이를 보는 매체가 아닌 듣는 매체로 착각하게 만들 정도이다.

바로 이러한 존재양식은 지금까지 논의한 종교와 대중문화, 종교화된 사회-미디어 이벤트를 관찰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종교의 이러한 존재 양태는 종교교육의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Ⅲ. 결론

이상으로 ‘종교와 미디어’의 관계를 주제화하여 연구해온 사회과학의⁵²⁾ 연구 성과를 주로 참조하여 ‘종교-미디어 생태공간’ 속에 드러난 종교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를 종교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미디어 시대를 헤쳐 나가며, 바로 그 미디어와의 공생과 반응을 통해 종교의 다양한 특징들이 현대의 맥락에서 새롭게 드러난다. 현대의 종교교육은 미디어와의 관계 속에 드러나는 종교의 함의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종교와 미디어와의 반응영역이 너무도 상이하고 다양하여, 과연 어떤 주제와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미디어 시대 종교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본 논문은, ‘종교적 미디어메시지’의 ‘생산’과 관련된 내용, 종교미디어의 콘텐츠 - 혹은 세속 미디어에서 다루는 종교적 콘텐츠에 대한 내용, 종교미디어 메시지 수용자들에게 대한 내용, 인터넷과 종교에 대한 내용, 그리고 문화연구의 관점에서 관찰한 종교현상에 대한 내용을 주요 주제로 삼고, 여기에 나타난 현대 종교의 특징들과 존재양식을 종교 교육의 내용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미디어와의 반응을 통해 드러난 종교의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종교교육에 포함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첫째는, 종교의 확장성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교육자와 피교육자는 종교가 현대 미디어 사회에서 외연을 넓히는 방법 - 그리고 이 과정에 개입되는 정치-경제-사회적인 요인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는 미디어 시대 종교 변동 시작점의 좌표와 영역의 문제이다. 이에 관해 본 논문은 미디어상의 종교적 콘텐츠가 종교 변동의 진원지가 될 수 있음을 밝혔고, 바로 이런 점을 종교교육 - 나아가 ‘종교와 미디어’교육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말하였다.

셋째는 종교 효과의 구체적인 메카니즘의 문제였다. 이 부분에서 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종교의 효과라는 것이 종교 자체의 힘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회적 장치나 제도의 힘과 결합될 때만 발휘되는 것인지, 더 나아가 후자의 효과에 종속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성찰은 종교가 지닌 사회적 힘의 발원지를 찾는 것으로서

52) 매스컴 연구.

종교의 본질에 대한 질문에 맞닿아 있다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종교교육의 중요한 주제로 삼을 만 하다.

넷째는 인터넷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다. 인터넷 시대에 이르러, 인터넷이라는 거울을 통하여 현대 종교의 다양한 스펙트럼과 구체적인 실상들이 오히려 분명히 드러나는 면이 있다. 바로 이점에 착안하여, 특히 인터넷과 종교의 부침에 관한 문제, 혼종성과 종교 정체성의 문제, 인터넷의 영성화에서 드러난 종교의 인식론적 영역에 대한 확장 동기 등을 종교교육에 포함 시킬 것을 말하였다.

끝으로, 문화연구의 관점에서 관찰한 종교현상에 대한 내용 역시 종교에 관한 교육의 주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종교는 현대 사회 곳곳에서 형태와 모드를 달리하여 존재하고 있고, 종교 교육은 바로 이 점을 포착하여 현대사회 특유의 종교의 존재 양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동양의 깊이 있는 통찰에 따르면, 종교는 세상 모든 현상의 근본에 대한 가르침이다. 세상은 참으로 넓고 그 현상은 고도로 복잡다단하며, 이 현상들에 대한 근본 설명이란 것은 필연적으로 깊은 통찰과 난해함을 포함한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종교 교육의 난점 - 정확히 말해 무한 변수들의 헤아릴 수 없는 교차로 구성된 현대사회의 맥락에서 행해지는 종교 교육의 난점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깊이 인정하고, 미디어 연구가들의 통찰들을 통해 얻어진 현대 사회 속 ‘종교와 미디어’의 관계에 대한 생각들이 종교 교육의 그 의미 있고 실제적인 힘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본 논문을 마친다.

참고문헌

- 강대인, 「종교방송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논총』 4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6).
- 김기태, 「미디어가 그리는 종교 이미지 비교 분석」,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0 (한국언론학회, 2010).
- 김수환, 황영주, 「멀티미디어 창작을 활용한 기독교교육의 가능성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44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15).
- 박진규, 「미디어의 종교담론 생산과 그 정당화 - TV 다큐멘터리 ‘신의 길 인간의 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2(6) (한국방송학회, 2008).
- _____, 「매개된 종교와 사회 변화 -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언론의 반응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4 (한국언론정보학회, 2015).
- 윤석년, 방송광고 규제정책의 변화와 영향에 관한 연구: 민영 미디어랩 도입과 중간광고 허용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9(2) (문화방송, 2008).
- 전명수, 「정보화사회와 종교문화의 변용 - 교회의 인터넷 활용과 그 의의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33 (한국종교학회, 2003).
- 정미영, 한균태, 「종교방송에 대한 수용자 기대연구: 창원극동방송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9(3) (한국지역언론학회, 2009).
- Bellah, R. N. & Hammond, P.E., *Varieties of Civil Religion*,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80).
- Campbell, H., “Spiritualising the Internet: Uncovering discourses and narratives of religious Internet usage”, *Heidelberg Journal of Religion on the Internet*, (1.1), 2005.
- Carey, J. W., *Communication as Culture: Essays on Media and Society*, (London: Taylor & Francis, 1989).
- J. J. Cobb, *Cybergrace: The Search for God in the Digital World*, (New York: Random House, 1998).
- Doss, E. “Believing in Elvis: Popular piety in material culture”, In *Practicing Religion in the Age of the Media: Explorations in Media, Religion, and Culture*, S. M. Hoover & L. S. Clark, (Ed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 Durkheim. E.,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 C. Cosman. (Tran.),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Ellens, J. H., *Models of Religious Broadcasting*, (Michigan: Grand Rapids, 1974).
- Hackett, R. I. J., "Religion and the Internet", *Diogenes*, (53/3), 2006.
- Hall, S., "Encoding/decoding", In *Keywords*, M. Durham & D. Kellner, (Eds), (Malden: Blackwell, 2001).
- Hoover, S. M., Clark, L. S. & Rainie. L., “Faith Online: 64% of wired Americans have used the Internet for spiritual or religious purposes”,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http://www.pewinternet.org/pdfs/PIP_Faith_Online_2004.pdf>, 2004.

- Hjarvard, S., *The Mediatization of Culture and Society*, (New York: Routledge, 2013).
- Howard. R. G., "The vernacular web of participatory media", *Critical Studies in Media Communication*, (25/5), 2008.
- Lövheim, M., "Young people, religious identity, and the Internet", In *Religion Online: Finding Faith on the Internet*, L. L. Dawson & D. E. Cowan, (Eds), (New York: Routledge, 2004).
- Parker, E. C. & Barry, D., *The Television-radio Audience and Religion*, (New York: Harper, 1955).
- Shepard. A. C., "The media get religion", *American Journalism Review*, (17/10), 1995.
- Schultze, Q. J., "The Mythos of the Electronic Church",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4/3), 1987.
- Wertheim, M., *The Pearly Gates of Cyberspace: A History of Space from Dante to the Internet*,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0).

원고접수일: 2016년 1월 18일 심사일: 2016년 1월 29일 게재확정일: 2016년 2월 11일

연구자소개: 성기현

① 전공: 미디어 스터디 / 소속: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인문사회학과의학과

② 관심영역: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종교

③ E-mail: aenea629@gmail.com

Abstract

Religion and Media as a Topic of Religious Education

Sung, Kihu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t is through the media-religion ecosystem that much of characteristics of contemporary religion are revealed. Contemporary religious education needs to address underlying religious meanings implicated in the relation of religion with modern media. In light of this perspective,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religion revealed in religion-media ecosystem be discussed in religious education.

First, the expansionability of religion needs to be considered. In this consideration, one can speculate the question as to 1) how religion expands its area in modern media society, and 2) how socio-cultural-political factors are involved in that process. Second, this study posits religious media contents can be the epicenter of religious changes, and religious education can deal with this point. Also, religious education should account for the fabric of religious effects, i.e., whether the effects originate from the power of religion itself, or are mediated through social apparatuses and system, or are even subordinate to them. Then, this study suggests religious education include the relation between religion and the Internet. In the age of the Net, the wide spectrum and concrete reality of religion tend to manifest itself more clearly than ever. Given this point, religious education needs to address 1) the effect of the Internet on religion and 2) the issue of hybridity and the reconstruction of religious identity. Also, religion's motivation of expanding its epistemologic area reflected on the concept of 'spiritualization of the Internet can be a necessary topic of the religious education in the Net era. Lastly, this study suggests that religious phenomena considered in terms of cultural studies perspectives be included in the education about religion.

In consideration of all theses points, religious education can address the unique landscape of the contemporary religion.

Key words: religion, media, religious education, Internet, religious phenomena, contemporary society